

<성령 집회 간증문>

대전 대명 교회

정예인 목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대명교회 정예인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외로우시고 저희들이 그 심정몰라드려서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은 새벽의 이른 시간부터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새벽에 홀로 계실 주님을 생각하니 제가 깨어서 대화 상대가 되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새벽 1시도 늦었다고 하시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세계 민족과 섭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루 중에 주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의 위대함과 가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새벽 4시 53분에 받아 적은 글입니다.-

-새벽 첫시간부터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했는데 깜박 잠이 들어 새벽 기도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회개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을 귀히 여기고 잡아야 한다.

새벽을 놓치면 하루를 놓친다.

새벽을 빼앗으려고 저 사탄, 마귀들이 너희들을 노리고 있구나. 새벽은 나와 만나는 시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너희 선생도 새벽 시간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노라.

그러니 섭리인 모두가 새벽을 깨워야 한다.

새벽에 기도해야 나와 만날 수 있다.

새벽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새벽에 모두 나와 기도하자. 나를 찾아다오.

내가 각 교회를 둘러보고 가노라.

아직도 새벽에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새벽 기도에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되어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다. 새벽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새벽을 깨워라.

새벽 시간을 귀히 보아라.

새벽에 나와 만나자. 나를 사랑해다오.

사랑하는 섭리의 신부들아!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다오. 사랑으로.....

<2009년 10월 9일 새벽 5시 30분>

-이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생활이다.

생활 속에 기도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에 한 번만 만나고 끝날 것이냐.

매일 부르고 찾아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냐.

그렇듯이 생활 속의 기도로 나를 불러라.

수시로 무시로 찾아야 한다.

새벽에만 기도하고 어떤 특정한 때에만 기도하고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많구나.

기도를 하라.

기도로 나도, 너희 선생도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로 흑암,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로 생명 관리하고

기도로 나를 만나고

기도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로 나와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며

기도로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풀린다.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도 하나되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써 고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

나와 같이 기도하자.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이다.

모두 깊은 기도로 나를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생활속에 기도로주
님을 부르시고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려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